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9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목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모든 가정이 영적 가정이 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3.24(목) 오전10시 작전동 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

- ① 일 시 : 5.31(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3. 인도네시아 전시간 봉사자 내방(19명)

- ① 일 시 : 3.20(주일)~21(월)
- ② 접대 및 쉬임 장소 : 3지역(연수동 집회장소)
- ③ 쉬임 집회 : 3.20(주일) 7시30분

4. 일본 삿포로 교회 내방(7명)

- ① 일 시 : 3.22(화)~24(목)
- ② 접대 및 쉬임 장소 : 학생센터
- ③ 쉬임 집회 : 3.23(수) 8시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여름훈련 집회 안내

- ① 일 시: 7.4(월)~9(토)
출국일 7.1(금)~12(화)
- ② 장 소 : 미국 아나하임
- ③ 신청금: 200,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 ④ 신 청 : 집사실로 3.21(월)까지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3.07.(월) ~ 2016.03.13(주일))

지역	1지역 (83명)					2지역 (106명)					3지역 (101명)					4지역 (122명)					5지역 (97)					6지역 (62명)					7지역 (21)					계				
그 물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	의	화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외상	19	15	15	15	10	9	13	16	15	15	11	14	20	2	28	17	19	21	16	17	1	7	9	19	12	16	8	12	12	26	30	20	21	16	16	12	18	11	10	592
기 도	10	7	6	2	4	7	2	7	2	8	5	5	6	6	14	6	15	8	11	8	5	3	10	6	6	2	5	4	5	17	10	8	7	6	8	5	4	3	247	
그 물	12	8	9	9	6	6	2	7	8	10	5	6	10	10	19	10	14	11	12	7	5	2	11	6	6	7	4	10	20	11	13	10	10	7	4	6	6	312		
아침부흥	11	7	7	4	1	5														8	5								10	23	16	13	13	7	8	5	6	149		
어린이	11					20					11					24					14					8					8					96				
아침소망											8					5															5					18				
중고등부	8					5					11					11					16					14					1					66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3. 20. 16-12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늦 물두멍

딤후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운영을 위한 물두멍

물두멍은 성막의 운영을 위한 것이다. 바깥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다. 군대가 없으면 성막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물두멍이 없으면 성막이나 바깥뜰에서 운영이 될 수 없었다.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물들이 제단에 드려져야 했다. 이 제물들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포함되었다. 이 제물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았다면, 성막이 운영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또 제사장들이 상 위에 떡을 진열하고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또 그들이 분향단에서 중재하는 것도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은 성막의 운영과 관계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리려고 제단으로 가거나 봉사하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먼저 그들의 손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에 가야만 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는다면 성막이 운영될 길이 없다. 군대가 없다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멈춰 버릴 것이고 움직일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두멍이 없다면, 성막이 운영될 수 없다. 만일 물두멍이 바깥뜰에서 제거된다 하더라도, 성막과 바깥뜰에 있는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것들을 운영할 길이 없을 것이다.

땅과의 접촉에서 씻겨져야 할 필요성

바깥뜰과 성막에서의 제사장들의 봉사는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을 씻는 것에 달려 있다. 어느 누구도 손을 씻지 않고 여러 날을 지낼 수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을 씻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낸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들은 사적으로나 집회에서 종종 조용히 기도한다. 나는 그들의 기도의 봉사가 염려스럽다. 자매들이여, 당신은 기도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당신의 손을 씻는가? 당신은 기도의 봉사에 들어가

기 전에 영적인 씻음을 가지는가? 어떤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죄들과 허물과 범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씻음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도 씻음의 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로써 씻는 것이지 물두멍의 물로 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과 허물들과 범죄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 우리의 잘못들과 실패들과 결점들과 단점들을 우리에게서 씻기 위해서도 피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분은 물을 사용하셨다. 이런 씻음은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자들의 발은 더러웠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이 필요했다.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 즉 더러움에 있었다.

만일 우리가 거저말을 하거나 우리의 성질을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을 접촉함으로써 더러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더러움을 정결하게하기 위하여 피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바닥을 만져서 더러워진 손은 물로 씻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땅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면,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 한다.

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염려스럽다. 그들은 더러워지거나 불결해진 것을 항상 죄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더러움의 두 종류에 관하여 말한다. 그것은 죄에서 나온 더러움과 땅의 접촉으로 말미암은 더러움이다. 만일 우리가 거저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 범죄들로 인하여 더러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접촉하고 세상을 만짐으로써 또 다른 방법으로 더러워질 수 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곳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다. 우리의 손은 심지어 옷을 만짐으로써도 더러워질 수 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접촉함으로써 영적으로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 이 땅에서 살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러워진다. 더러워지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과 접촉해도 더러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접촉함으로써 오는 더러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잡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하고 거순하고 정직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식점을 가거나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더러워진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실패와 단점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나, 물두멍의 물로 씻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물두멍의 씻음은 우리의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우리의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마찬가지로 물두멍의 씻음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접촉함으로써 더러워지는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물두멍의 물로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하러 가는 것은 잘못될 것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죄도 행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더러워질 것이다.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의 대화를 들음으로써 더러워질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여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더러워진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더러워질 것이다. 모든 세상이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기는 너무나 쉽다.

먼저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막 안에서 봉사한 결과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물두멍에 우리의 발을 씻는 것까지도 필요하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집회에 오는 것은 사실상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성막 안에서 주님께 봉사하기 전에 우리는 씻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는 물두멍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올 때, 그들은 불결한 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회 집회에 와서,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을 씻지 않은 채 봉사한다. 이러한 봉사는 사망을 가져온다. 이따로 3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지 않은 한 하나님의 봉사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불결한 손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망이 있는지! 그들은 더 봉사할 수록, 더 많은 사망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한 손을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이다. 불결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온다.

만일 우리가 집회에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두멍의 씻을 없이 기도하거나 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사망을 퍼뜨릴 것이다. 사망은 물두멍의 씻을 없이 기도하거나 봉사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거처를 운영하기 위하여 물두멍을 체험함

속전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물두멍은 하나님의 거처의 운영을 위한 것이다. 속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처는 세워질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없다. 받침들과 기둥머리들과 깔고리들과 가름대를 만드는 은이 부족할 것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울 군대로 모집될 사람들의 합당한 수가 부족할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물두멍 없이는 성막이 운영될 수 없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있고 모든 기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운영할 길을 갖지 못할 것이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는 누구도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다. 제단과 상과 등대와 법궤와 분향단이 강조되는 반면에 물두멍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운영하기 위하여 물두멍을 체험해야 한다.

생명주는 영의 씻음

매일 우리는 먼저, 속죄 제물이시고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 한 면으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시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체험하도록 할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 그것은 우리가 생명주는 영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행하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수록, 우리는 더 씻겨질 것이다. 모든 씻김은 어떤 장소로 가지 못하게 상기시킬 것이며 어떤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더럽히는 상황에 연관되지 말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이고 천연적인 것을 만지게 됨으로써 더러워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더러운 상황 속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봉사할 수 없을 것이며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지 않은 채 기능을 발휘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사망을 체험할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M156에서 발췌)

새 사람을 양육하는 원칙

엡2:4-5 그러나 공로이 통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영으로 사람들을 접촉함

1.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들을 주님과 '연결'시켜 주님께 의해서 속에서부터 소생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갓난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았을 때 체형적으로 말해서 그는 오직 절반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체형을 통해서 안다. 우리는 그가 완전히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생의 비밀' 소책자를 가지고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가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이해할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에게 침례를 준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은 내적으로 주님을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마치 등과 전깃줄, 전구는 설치되었지만 전기가 아직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들을 주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의해서 속에서부터 소생되어야만 한다.

2. 가정 집회에 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을 만지고, 열려지게 하고, 소생시켜야 한다.

새로 침례 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영을 만져야한다. 우리는 이 중점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생명 공과를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지만 경직된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중점이나 구절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것인지의 여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영이 만져진 바 되면 우리는 좀더 전진된 빛 비춤이나 계시를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라면 우리는 그와 길게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할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속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사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영이 이제 한 영이 되기 위하여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점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처음에 그는 생각 안에서 들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당 시간 이야기한 후에, 그는 영을 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교통은 반드시 우리의 체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가정 집회에 갈 때에, 체험에 기초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을 만져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열려지게 하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야 한다.

3. 이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 것이 우리가 말하는 막인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에 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함을 말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더 열려지게 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

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달라고 주님께 단순히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일종의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부름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 우리의 영으로부터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부르는 출처이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 주 예수여!"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부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만지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

4.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들의 영으로 직접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지를 배운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으로 직접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게 할 수 있을지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점이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배워서 실행해야만 한다. 어떤 것을 하든지 실질적이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합당한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이 아닌 가르침 받고 훈련된 방식으로 일들을 해야 한다. 일을 수행해 낼 합당한 방법이나 기술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방법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기술에 대해 두 가지의 예가 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경우'이다. 니고데모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왔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3:5-6)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두 영을 지적하셨다. 둘째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경우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접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것이 그들로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이끌었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 안에서 예배할지니라"(요 4:24)고 말씀하셨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는 부도덕한 여인에게 생수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영을 훈련해야 함을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기술을 사용하셔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둘 다 그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게 이끄셨지만, 그분의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셨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사람들과 대화하는 우리의 방법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영으로 접촉하도록 이끌어야 함을 볼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영으로 그 영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시하는가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접촉함으로써 그들이 소생되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전기를 끌어 합당하게 연결시켜줄 줄 아는 전기 기사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240-243p 발췌)